

# 사찰생협, 신토불이 앞장

부천시석왕사 신도인 김보리심보살(40세)은 지난 3월 석왕사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조합원으로 정식 가입한 이후 가족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는 일 하나에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무농약 쌀 등 유기농산물을 조합을 통해 직거래로 구입해 먹는 쉬우면서도 당연한 일이 바로 우리농촌을 살리기 위해 동태배의 가르침을 이어 공동체적 삶을 엮어가는 중요한 일이라는 자부심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라고 말하는 김보살, 수입농산물과 각종 화학약품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농산물이 우리의 환경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요즘,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한 몫을 담당하며 생활협동이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다.

고개에서 유일하게 조합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는 석왕사생협은 충청도, 전



◇석왕사 생협은 우리밀, 무농약 쌀, 무공해 콩, 환경세제 등을 불자들에게 공급하며 함께사는 철학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 석왕사 우리는 선우등 지역농민 판로 제공 무공해 쌀등 유기농산물 직거래 "식탁 건강"

라도, 강원도 등지에서 생산되는 믿을 수 있는 우리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재생활장기, 폐유로 만든 세제 등 환경상품까지 갖춰 우리 농산물 이용과 환경보호 운동을 함께 실행해 올기는 실천도량이 되고 있다.

신선한 유기농산물을 생산자와 직거래 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기여하고 소비자는 생산자가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며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적정가격으로 구매해 소비자권

리를 지킨다는 취지로 결성된 소비자 조합이 바로 생활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생협은 뜻있는 사람들이 모이겠지만 하면 지역단위, 직장단위로 공동체결성 이 가능하기때문에 타종교의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퍼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 출자방식의 석왕사생협과는 달리 고개 몇몇 사찰과 단체에서도 소규모 구판장 형태의 생협을 최근들어 하나둘씩 개설하고 있다.

지난해 생활협동조합의 문을 열고 신

도들에게 쌀과 잡곡류, 생필품등을 판매하고 있는 강남교원은 신도회에서 자원봉사자를 구성해 생협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선우 생협의 경우는 매월 1회 정기법회시간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김 개 참기름 등을 판매한다. 이밖에 금강경동승회가 포항본부에서 직접 생산한 메주와 된장, 고추장, 막장, 죽염간장등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마산등 6개 지역법당으로 공급해 원하는 불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이들 생협들은 지역사찰과 지역농민의 연계, 전문운영

진의 부족 등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생협은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먹거리로 신도들을 결속시키고, 그 먹거리를 통해 사찰이 신앙공동체이자 곧 생활공동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우리 불자들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큰 역할을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현재 생활중앙회와 재정경제원 등에서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소비자 협동조합법이 올가을 제정되면 생협을 통한 공동구매 사업, 공동시설 이용 등이 보다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찰을 중심으로한 생협의 활성화를 포교의 또다른 방편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결속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확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찰의 적극적인 관심과 중년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 만화 법구경

일천(1)의 경  
쓸모없는 말을 많이 늘어놓는 권 마니보다  
이 할 원

많이 드셨어요? 세상이 마시게 하는 구면  
다녀 왔습니다  
오! 뭐야 이렇게 늦게  
학원에 들렀다 오니까 너 안방으로 좀 들어와  
잘했다 나 안방으로 좀 들어와

넌 공부할 생각이 있는거야? 성적이 나빠진수목 공부박질 아니 무슨 이유야?  
넌 없어 대학 못가는 애도 수두룩한데  
뭐가 부족해서 성적이 그 꼴이냐 말아  
공부 제대로 못하고 사회에 나가봐 사람 대접 만다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거야!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말아  
니 어디 한 눈 봐는데 있어?  
말 좀 해봐!  
입술은 왜 깨물어  
이런 얘기 나 좀으라고 하는 줄 알아? 다 날 위해서만 말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것 몰라?  
인간 구실 하면서 살고 싶으면 정신 똑 바로 차리란 말야 알아?  
힘들지? 이서 들어가 자거라  
쓸모 없는 말을 많이 늘어놓는 권 마니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아

영화가 기다려  
도시락은 가지고 가자  
아직도 마음이 상해 있는거니?  
아버지께서도 안타까우니까 하시는 말씀 이니

힘들겠지만 기운을 내  
쓸모 없는 구절로 모아 엮어 놓은 권 편의 시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시다  
너 왜 그러고 있니?

도시락 가져오지 않았어?  
아 아니 있어  
쓸모 없는 구절로 이루어진 백편의 시를 옮기거나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것이다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은 의학적으로 그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오래도록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이런 의학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의학적인 영역이라기 보다 오히려 철학이나 종교적으로 더 많

나 사고 행동에 관여하는 독특한 신경전달물질이란 것을 밝혀냄으로써 마음의 일부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얼마전 전한 '사랑 신경전달물질'이라고 생각되는 물질을 분리해내어 실험적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재미있는 문을 열게 되었다. 한 이집트의 저명한 신경과학자가 연애중인 사람들과 부부사이가 아주 좋

때 훨씬 많은 양을 분비한다는 것이다. 이미 의학계에서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통증과 같은 특별한 자극을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신경전달물질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현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사랑이 충만하여 기쁨에 넘쳐있는 사람과 화가 많거나 적개심으로 인해 흥분해 있는 사



## 신경전달 물질 마음까지 바꾸기는 어려워

이 회자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근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뇌의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의 발달에 힘입어 생화학적인 발달에 이르기까지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최근에는 인간의 정서

은 인교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그들에게서 다른 일반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신경전달물질'을 분리해 내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에 따라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이 따로 있다는 것과 그 양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람은 나타나는 현상적인 증상이 물론 다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확인한 다른 현상을 관여케 하는 어떤 물질이 있을 것이란 추정은 했지만 지금까지 '사랑신경전달물질'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분리해내지 못했다.

앞으로 이 분리물질이 학계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이런 사랑신경전달물질이 풍부하게 분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학계에서는 오히려 사랑이 결핍되어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질병들에 이런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그 질병이 일으킬지도 모를 여러 증상을 치료해 보자는데도 착안을 하고 있다. 발상은 그럴듯하나 단순히 약리작용만으로 사랑이 발생할 것이란 추측은 착각이다.

**이런 후 건강칼럼**

<27>

**사랑의 눈을**

## 책방여시아문

오십시오

오시는 길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4.1부터 시행)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용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현대불교신문사 주취 행사 우선 초대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적직통) 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번